

10년새 30% ↓... 제주 분만 인프라 '흔들'

27년 운영한 제주시내 산부인과 폐원 소식에 슬렁 분만 가능 병원 2014년 14→ 2024년 9곳으로 줄어 저출산·고위험·인력난 등 종합병원·의원 등 한계

27년간 운영해 온 제주시내 한 산부인과 의원의 폐원 소식이 최근 전해지면서 임신부와 산모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슬렁이고 있다. 해당 산부인과 의원은 도내 신생아 분만의 약 28%를 담당해 온 중추적인 분만 의료기관이어서 이번 폐원 결정은 지역 분만 인프라의 위기를 보여주는 신호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 최근 10년간 제주에서 분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30% 넘게 줄어들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제주도의 분만 가능 요양기관은 2014년 14곳에서 2024년 9곳으로

줄어들었다. 10년 동안 35.7% 감소한 것이다. 분만건수도 2014년 5436건에서 2024년 3039건으로 44.1% 줄었다.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 제주한라병원 등 종합병원 3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의원급 기관이다. 2024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분만 가능한 기관이 가장 적은 곳은 광주·울산·세종(각 7개)이 있으며 제주는 그 뒤를 이어 네번째였다.

이 같은 상황 속에 1999년 개원해 지역 최일선에서 분만 진료를 중추적으로 해 온 제주시 원도심에 있는 한 산부인과 의원이 8월 폐원을 예고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의원 측은 의료진의 체력적 한계와 필수 의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원장은 병원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긴 글에서 “매월 30~50명에 이르는 새 생명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며 “하지만 수년간 필수 의료 인력 부족으로 동료 원장과 함께 2명이 365일 당직을 서야 하는 현실 속에서 체력적인 고갈과 인력 부족이라는 위험 요소를 마주했다”고 토로했다.

의료계에서는 저출생 추세에 따른 전체 분만 건수 감소와 저수가 구조, 고위험 임신·분만 증가, 의료분쟁 위험, 전문의 인력난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리면서 전국적으로 산부인과가 폐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종합병원보다 의원급 기관이 먼저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제주에서도 분만 현장의

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의원급 기관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지난해 8월 권역모자의료센터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아 지역 내 고위험 임신·분만과 신생아 치료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역시 최소 4명의 산부인과 전문의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 3명(1명 휴직)에 불과하다.

다른 종합병원 역시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필수 인력 부족 현상은 전국적인 상황인데, 지역이 인력 구하기가 더 힘든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산과 전문의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어 병원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제주 개별여행객 지원금 조기 종료 3만여 명 참여하며 시행 일주일 만에 마감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4일부터 제주에서 2박 이상 체류하는 개별관광객에게 여행 지원금을 지급하는 감사 프로모션이 시행 7일째인 10일 예산이 모두 소진돼 조기 마감됐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고유가와 유류 할증료 상승 등으로 제주 여행 비용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개별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7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했다.

제주에서 2박 이상 체류하고, 제주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NOWDA)'에 가입한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5만원의 지역화폐(탐나는전)를 제공했다.

프로모션 기간 총 3만여 명의 관광객이 혜택을 받았다. 이들은 제주 체류 기간 연장, 지역 소비 확대, 제주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가입을 통해 제주 여행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벤트는 조기 종료됐지만, 공사는 고유가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전기차 이용 혜택, 농어촌민박 한 달 살기 지원, 다자녀 관광객 지원, 맛있는 제주 여행 이벤트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사랑의열매, 폭염 취약계층 나눔캠페인

2026 제주, 희망여름 착!착!착! 6월 15~7월 15일 한 달간 모금

제주사랑의열매는 여름철 취약계층 지원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전개한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제주사랑의열매)는 '2026 우리제주,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1일간 진행된다.

이번 모금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지원하고,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단위 모금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개인·기업·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금된 성금은 제주지역 폭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강지언 회장은 “무더운 여름은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는 만큼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전용계좌(제주 03-13-004820,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를 통한 성금 기부와 ARS(060-702-1004), 문자기부(#9004)를 통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064-755-9810)로 문의하면 된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다시, 쓰는, 우리'

17일 오후 3시 새활용토크쇼

제주시새활용센터는 오는 17일 오후 3시부터 파타고니아 제주지역점(제주시 탐동로 16)에서 새활용토크쇼 '다시, 쓰는, 우리'를 개최한다.

이번 토크쇼에서는 김광현 파타고니아코리아 환경팀 팀장이 '수선하는 기업, 파타고니아 이야기'를 주제로 파타고니아의 환경 캠페인과 수선 문화 확산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제주지역 사례 발표로 장윤우 픽사이클(Fixycle) 제주 대표가 10대들의 자전거 수리 및 기부 활동, 김태연 2026년 새활용 예비창업팀 '리폼편의점' 대표가 의류 수선과 리폼 기반의 새활용 창업 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방의인 수리수리다수리마을 참여자가 지역형 리페어카페 운영 경험을 공유한다. 이후 질의응답 및 자유토크가 진행된다.

참여 신청은 홍보물 내 QR코드 또는 온라인 링크(forms.gle/B6UWdEmGr2DdX3BZA)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된다. 양유리기자



송악산 관광객 10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촬영하며 제주에서의 추억을 새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2026년도 제2회 검정고시 원서접수

도교육청, 22~26일 온·오프라인

제주도교육청이 2026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응시 원서를 접수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다. 현장 접수는 제주도교육청

책마루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민원인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 대국민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25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검정고시에 응시하려면 이 기간에 최종학력증명서와 여권용 사진 2

매,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희망하는 곳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험일은 오는 8월 11일이다. 합격자는 같은 달 28일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교육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도교육청 평생교육팀(710-0683)으로 문의할 수 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김승준 (제주시 한경면·추자면 선거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강 동 현 외 조합원 일동